

평 화 선 언

운명의 여름, 8시15분. 아침 정적을 깨는 B-29의 폭음. 창공에 펼쳐지는 「낙하산」. 그리고 섬광, 굉음—정적—아비규환

낙하산을 본 소녀들의 눈은 그을리고 얼굴은 화상으로 흘러내렸으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피부는 손톱부터 흘러내리고, 머리카락을 하늘을 찢었으며, 의복은 원형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폭풍으로 무너진 가옥에 깔려 타죽은 사람, 눈알과 창자까지 튀어나와 절명한 사람—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은자를 부러워할 정도의 「지옥」이었습니다.

14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내에 죽고, 죽음을 면한 사람들도 그 후 백혈병, 갑상선암 등 여러가지 질병에 걸려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화상 자국으로 일자리와 결혼에서 차별받았으며, 깊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이해받지 못하고, 고뇌하고 고통받으며 삶의 의미를 되묻는 나날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탄생한 메시지는 현재도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한 줄기 빛입니다. 「이런 고통을 다른 누구에게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잊어버리고 싶은 체험을 들려주며, 세번째 핵무기 사용을 막은 피폭자들의 공적을 미래영겁토록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피폭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즉응세력들은 그대로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비축·배치하고 있고, 핵확산도 가속화하는 등 인류는 지금도 멸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소수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힘의 지배를 신봉하는 20세기 전반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지구 규모의 민주주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피폭의 실상과 피폭자의 메시지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시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식민지는 독립하였고, 민주적인 정치가 세계에 정착되었습니다. 더욱이 인류는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거울삼아 비전투원에 대한 공격이나 비인도적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구축하고, 국제연합을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슬픔과 고통을 공유해온 도시가 펼쳐 일어나 인류의 예지를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로 국제정치를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1698개 도시가 가맹한 평화시장회의는 「전쟁에서 최대의 피해를 입는 것은 도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히로시마는 전미 101개 도시에서의 원폭전 개최와 전세계 대학에서의 「히로시마·나가사키 강좌」 보급 등 피폭체험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들은 「도시를 공격목표로 삼지 말라」는 프로젝트의 선두에 서고, 체코 시장들은 미사일 방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르니카시장은 국제정치에 윤리의 재등장을 호소하고, 이페르시장은 평화시장회의의 국제사무국을 제공하였으며, 벨기에의 시장들이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전세계 시장들이 시민과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지구 인구의 과반수를 거느리는 자치체조직 「도시·자치체연합」 총회에서 우리들은 인류의 의지로서 핵무기 폐기를 호소합니다.

유일한 피폭국가인 일본국 정부에는 우선 겸허하게 피폭의 실상과 피폭자의 철학을 배우고, 그것을 세계에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법에 따라 핵무기 폐기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진 일본정부는 세계에 자랑해야 할 평화헌법을 있는 그대로 준수하고, 미국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비 강우지역」 및 해외의 피폭자도 포함하여 평균연령이 74세를 넘은 피폭자의 실태에 맞는 따뜻한 원호책의 충실을 촉구합니다.

피폭 62주년인 오늘, 우리는 원폭희생자, 그리고 핵무기폐기운동 도중에 흉탄에 쓰러진 이토 전 나가사키시장님 영전에 짐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바치며, 핵무기가 없는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기 위해 행동할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2007년8월6일

히로시마시장 秋 葉 忠 利

번역 : 일본컨벤션서비스 주식회사